

## 참목자 (III)

요 10:11~18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우리 문으로 인도해 냅니다. 둘, 참된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풍성하게 먹여줍니다. 셋,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마저 아낌없이 버립니다. 이제, 셋째 특징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목자이심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시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엄하신 분, 접근하기 어렵고 두려운 분, 절대자, 초능력자, 권위자 등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지만,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분께서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죄를 심판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과연 위로, 용서, 사랑, 격려 등이 있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양의 목자와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방황하는 사람이나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다가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지내며 모두 허비한 후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 주실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지만,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 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 입히시고 잔치를 벌이시며 다시 얻은 아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의 모든 잘못도 용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

둘째로 참된 목자는 이웃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12절 말씀에서 참된 목자의 다섯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리더십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평신도와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정 관념을 짓밟아 버리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를 군림하는 자 또는 위에서 부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도자란 돈과 권력으로 조직을 이끌고 지휘하며 명령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높은 자리란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도자를 왕이나 장군 등으로 표현하신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의 두 가지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스(boss)와 서번트(servant)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보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서번트 즉 '섬기는 자'라고 정의하십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목자에겐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녀 교육을 쉽게 포기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선교지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원주민의 언어를 쓰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나선 사람들, 그것도 선진국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선교사들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 소문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희생'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목숨마저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 삿군목자의 특징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세상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삿군 목자라고 합니다. 삿군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목자인 척하는 것이지, 절대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카우보이는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양떼를 몰고 갑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카우보이 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카우보이를 목자라 하지 않습니다. 삿군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닐 뿐더러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양들의 수와 무게를 세고 재는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양의 고기와 털입니다. 삿군 목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양들을 팔아치웁니다. 그들은 양들이 위기에 빠지면 아무 미련 없이 버

리고 도망갑니다. 감정이 없는 지도자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저가 샅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돌보다’는 것입니다. 샅군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자와 돌보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 **목자는 돌보는 사람**

돌, 참된 목자는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손때가 묻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손때를 묻혀가며 키웁니다. 이것이 양육이고 돌봄입니다.

부모의 손때가 묻어서 자란 자녀가 있고, 그냥 자란 자녀가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방치한 채 자라게 하는 부모가 있고,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밤잠을 설쳐 가며 양육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방황할지라도 품어주고 용서하며 돌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구원하려는 부모가 진정 돌보는 부모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셋, 참된 목자는 양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 말의 뜻은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선배가 후배를, 상관이 부하를 돌보는 것은 기특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열 여섯 살 된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겠느냐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요코하마 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그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은 아들의 암 치료를 위해 휴스턴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면 암에 걸렸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 말씀의 리더십은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던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 **우리 밖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

넷, 참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며 괴로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지만,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전파해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거듭 강조하셨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도 바울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온누리교회가 발견한 리더십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밖에 있는 나의 가족, 친척, 북한 동포, 일본과 중국 사람들, 미전도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밖에 있는 영혼을 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여섯 번째로 요코하마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했는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습니다. 또 나고야교회를 개척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흥분됩니다.

일년 전에 교인 한 명 없이 세웠던 우에다교회가 1년 6개월만에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90%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에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우에다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성도는 세례 간증에서 일본 전역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여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분이 우에다교회를 발견하고 출석했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크게 감동받아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분이 했던 말을 아직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에다 교회는 저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 분은 교회가 없었다면 자살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 죽어 가는 영혼들이 그 여성 한 분일까요?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죽어가며 절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참된 목자의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떼를 끝까지 돌보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듯, 생명의 관계로 양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참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 스스로 봉사하는 리더십

마지막으로 다섯, 참된 목자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굳이 복음 전파를 하려고 미지의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는 사람입니다. 편안히 누려도 되는데 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의 전형

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타율성이 아니라 자율성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실 때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봉사하는 일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님들은 그 분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팀까지 건넌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좋아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람은 대가가 없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하기 싫은 일을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봐 주길 원하며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휠체어 타신 분들이 봉사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좋아서 하십니다. 온누리교회에 이런 자원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참된 리더십의 모형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 평안,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손해보고도 좋아하고 욕먹어도 좋아하며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양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 없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원망 없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고도 섭섭하지 않게 하옵소서.

목숨까지 내어놓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